

# 전남 소림피스킨병 차단 고삐 죄다

### 도, 발생지역 소 반입 전면 금지...시·군 축산시설 일제점검 소독점검반 지정 운반차량 매일 확인...정부, 백신 순차 배분

전남도는 전북 부안 한우농가에서도 소 립피스킨병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특히 농축산식품국 전 부서가 총출동해 27일까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긴급 방역조치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립피스킨병이 발생한 지 일주일째인 26일 현재 확진 사례는 42건이며, 농장 42곳에서 살처분됐거나 살처분 예정인 소는 모두 3011마리다.

전남도는 그동안 농식품부의 립피스킨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시·군과 인접 시·군의 소 농장 생축 반입 및 반출 금지 조치에 더해 립피스킨병이 발생한 시·도 전체 시·군의 생축에 대해 전남도 내 반입을 전면 금지해왔다.

또한 시·군 방역대책 추진상황,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가축시장 환경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군의 방역대책본부 운영 상황, 소 사육 농장 소독지원 내역, 흡혈 곤충 방제 상황, 거점 소독시설 운영 실태 등이다. 폐쇄된 도내 가축시장 15개소의 오염물 제거 등 청소 상태와 소독 실태도 점검한다.

전남도는 또 축산차량이 많이 드나드는 10개 소·돼지 도축장에 대해 자체 소독전담관을 지정해 소 운반 차량의 도축장 진입 전후 소독(세척) 등을 점검·관리하고 전남도 소속 검사관이 매일 확인(입회)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매일 '소 립피스킨병 차단방역 추진상황 일일 점검회의'를 열어 현장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할 방침이다. 긴급 방역비 10억 원을 투입해 매개체인 해충 구제약품 등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에서는 10월 말까지 400만 마리분의 백신을 추가 도입해 위험도가 높은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발생 시·도 및 여타 시·도 등 순차적으로 백신을 배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백신이 공급되면 단기간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긴급 백신 접종반 111개 반 270명을 미리 편성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지난 24일 예방백신을 신속히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소 립피스킨병이 가까운 부안에서 발생해 농장단위 차단방역이 느슨해질 경우 어느 때라도 도내에 유입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근력 키워 건강 지키세요” 26일 오전 광주 동구 푸른길공원 산수마당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근력운동교실이 진행되고 있다. 동구청 백년동아리 사업으로 진행되는 운동교실은 11월말까지 근력운동을 비롯한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시, 여행자 쉽터 6곳 구축

### 민간시설 리모델링...관광 편의 서비스+예술체험프로그램 운영

광주시와 광주관광공사는 “오는 11월부터 특색 있는 예술여행 콘텐츠를 보유한 민간시설에 관광 편의 서비스 기능을 접목한 민간예술여행 기반시설(플랫폼) 6개소를 구축·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민간예술여행 플랫폼은 ▲플라스틱 정류장 ‘예술마을투어’ ▲사진공방 끼 ‘동명동사진투어’ ▲

예술공간 집 ‘광주 옛길 예술 한바퀴’ ▲꿈브루어리 ‘나만의 계절 막걸리 빚기’ ▲지드림어스 예술체험공간 ‘꿈꾸는 푸어링 아트’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호랑가시나무 숲 속 영화제’ 등 6곳이다.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예술여행 플랫폼은 여행안내소 기능과 물품보관, 휴식이 가능

하도록 여행자 휴게공간 및 예술체험 프로그램실을 새단장했다. 세부 예술여행 프로그램 문의는 각 플랫폼에 문의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 온라인여행거버넌스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구매할 수 있다.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민간예술여행 플랫폼이 예술여행의 민간영역을 대표하고, 광주 예술관광 브랜딩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을 기대한다”며 “기반시설별로 특화된 예술체험 콘텐츠를 개발·확장해 광주만의 관광콘텐츠로 성장시켜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조직·경영 혁신

### 구조·서비스·경영 등 3대 분야 효율화 착수

광주 복지연구원과 통합한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이 조직과 경영 혁신에 나선다.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은 26일 ‘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기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새로운 조직 체계 안정화를 위해 구조, 서비스, 경영 등 3대 분야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 법인 조직체계 마련, 사회서비스 고도화, 유사·중복 사업 정비를 통한 예산 절감 등이 핵심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연구 용역을 거쳐 새로운 조직 체계를 토대로 복지 사업 영역을 재구조화하고 직

원 직급과 보수체계를 일원화한 통합 인사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정책 연구 성과 평가 체계를 개편해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광주시 대표 복지정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원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김대삼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광주복지연구원과의 통합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광주의 사회서비스를 도약시킬 변곡점을 맞았다”며 “신속한 조직 안정과 경영 효율화로 내부의 기능과 역량을 높이고, 더 넓고 촘촘한 사회서비스를 실현하는데 구성원들과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세계적인 인공지능 석학들 광주로...

### 광주과학기술원서 다음달 1~3일 ‘아이콘 광주’...기술 동향 등 공유

세계적 AI석학들이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로 몰려온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제 인공지능(AI) 학술대회 ‘제3회 아이콘(AICON) 광주 2023’이 다음달 1~3일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오룡관에서 열린다. 학술대회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비즈니스 혁신,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기술 동향과 미래 전망을 공유하는 자리다.

광주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주관한다. 첫날에는 인공지능 권위자인 미국 코넬대학교 다니엘 리 교수와 아이비엠(IBM) 아시아태평양 지역 산키 V 셀바두라이 부사장이 기조 강연을 하고 ‘인공지능 4 굿(AI 4 GOOD)’ 포럼이 열린다. 2일에는 구글의 조쉬 사벨 메사(MESA) 플랫폼 총괄, 자이스(Zeiss) 코리아의 매튜 윌슨 부사장의 특별 강연이 이어진다.

생성형 인공지능과 초거대 인공지능,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 창업 동향 등 분야에서 현안과 사례를 논의한다.

마지막 날에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로 로빈 콜먼 대표의 특강과 카이스트(KAIST)·유니스트(UNIST)·디지스트(DGIST)·지스트(GIST)가 함께하는 인공지능 엑시스트(AI+XIST) 등 미래 인공지능을 전망하는 강연이 열린다.

각종 기술 발표와 자율주행로봇 무인매장, 인공지능 기반 지하차도 침수 예측 감시체계 등 제품 전시·체험 기회도 마련된다.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아이콘 광주 2023은 인공지능분야 세계적 석학들의 강연부터 인공지능 기술의 최신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체험 전시관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만큼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지방정가 라운지

## 광주 감정노동자 실태·보호 방안 개선 토론회

### 채은지 시의원 “문제·해법 고민”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위원장 채은지·이하 노동특위)와 광주노동센터는 ‘광주지역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및 보호 방안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7일 오후 2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리며, 채은지 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회에서는 최선희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광주지회장이 ‘감정노동자의 실태’를, 김미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가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의 시사점’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김창민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실 팀장이 ‘광주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력 및 과제’



와 이선화 광주시노동센터장가 ‘감정노동자의 근본적인 문제와 해법’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지난 4월부터 진행했던 ‘2023 광주지역 감정노동자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문제와 해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 7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감정노동자 보호조례’를 제정했지만, 노동자들이 제갈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과 시민의식 개선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채은지 위원장은 “광주시 감정노동자 보호조례 시행 7년을 맞아 실제 현장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